

**출애굽기 19 장 이스라엘 사람들 시내 산에 이르다**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4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5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6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 19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 (출애굽 3 장 17-22)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5 장 13-21)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으니 이집트를 출발한 후 7 주만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 절부터 6 절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시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 장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 조건이 달려 있지 않지만, 시내산 언약에는 백성들의 순종이 조건으로 따라옵니다. 출애굽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바탕으로 하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6 절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잘 지켜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민족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 12 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 주위에 경계를 둡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백성사이에 거리를 두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4 절과 22 절에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와 연결됩니다. 모세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0 장 십계명**

3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4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7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12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13 살인하지 못한다 14 간음하지 못한다. 15 도둑질하지 못한다. 16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17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 20 장은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가진 분인지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아주 명확하면서도 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네계명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나머지 여섯 계명은 백성들간의 관계를 위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7 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예를 들어 거짓된 것을 정당화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8 절의 안식일은 그 당시에는 금요일 해가 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쉼과 예배를 위한 시간입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 대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 12 절은 복이 약속된 유일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산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3 절부터 나오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들만 지키라는 말씀보다는 최소한의 기본위에 더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십계명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유효한가 또는 지켜야 하는 계명인가?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답은 십계명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와 사회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 24 장은 20 장 21 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멀리 있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70 명의 장로들이 가까이 가고 모세는 혼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장면이 6-8 절에 나오는데, 피는 죄를 용서하는 의미와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절에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장면 이후에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언약을 확인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